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시민의 정원

인 천 愛 뜰

"인천 시민이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얘기할 수 있는
뜰(마당)을 생각했습니다."

인천愛뜰 명칭 공모 당선자 강태원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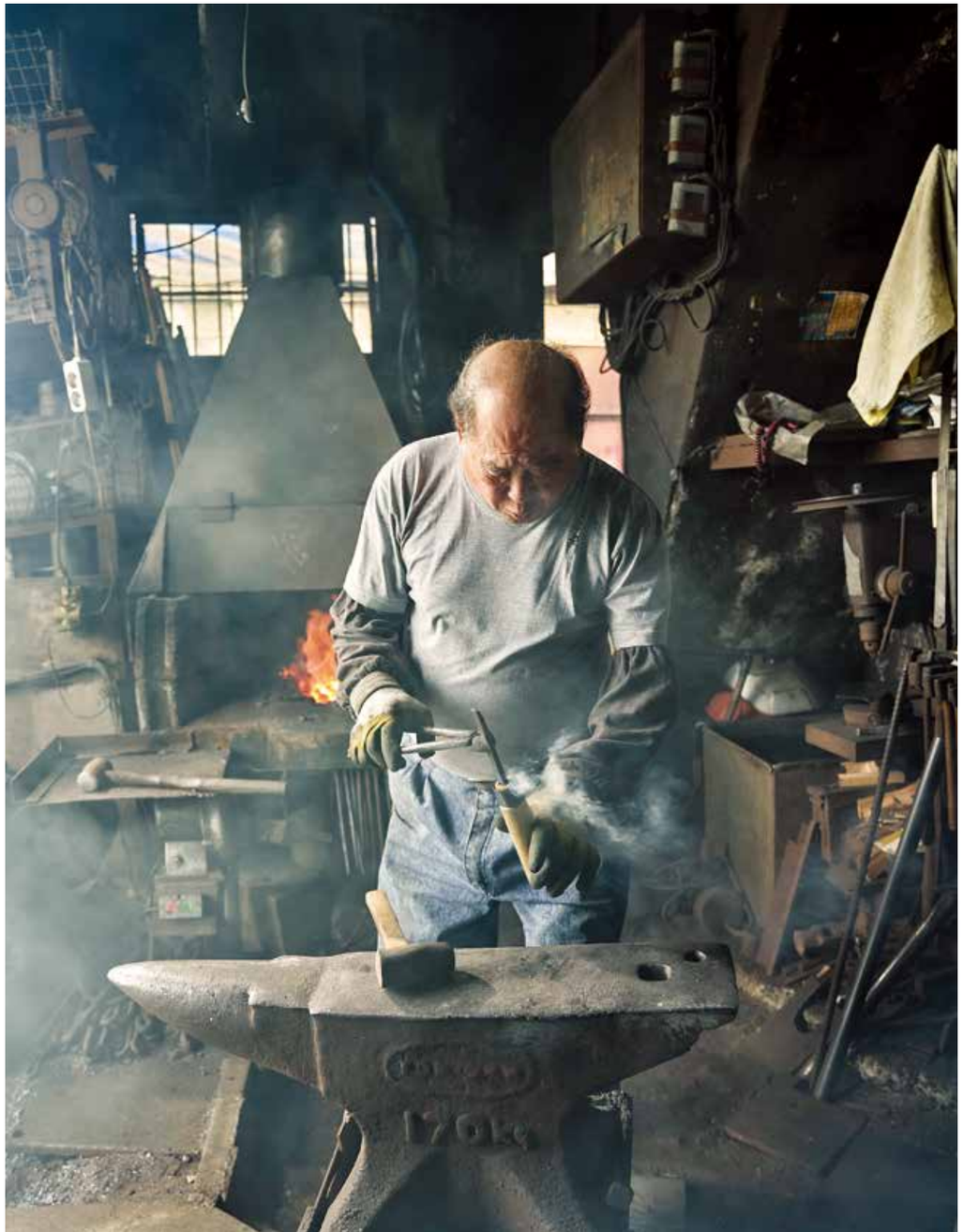
시청의 벽을 없애고 광장을
시민께 돌려드립니다.
인천愛뜰. 공유와 공감으로
활짝 열린 시민의 정원입니다.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19. 11 | NOVEMBER

11
NOVEMBER 2019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1

굿모닝인천

2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COVER STORY
65년 한길을 걸어온
도원동의 철공 장인 송종화
표지 사진 류창현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소래염전

아픔에서 희망으로, 하얗게 쌓인 시간

소래蘇萊는 소금의 고장이었다. 1907년 주안을 시작으로 남동, 군자와 함께 소금을 만들어냈다. 그 안엔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화약의 원료로 쓰려고 소금을 캤다. 그 야욕의 결정체가 그들이 놓은 철길을 따라 바다 건너 섬나라로 속절없이 흘러들어 갔다.
그 후로 염전은 가진 거라곤 바다뿐인 소래 사람들의 삶을 오래도록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1960년대 주안과 남동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염부들은 노동자로 떠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소래염전은 1996년 문을 닫는다.

염전 너머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진 저 일대도, 한때는 물기 어린 땅이었다.
염부가 힘차게 수차水車를 돌리던 염전 위로, 가을 하늘이 외롭게 잠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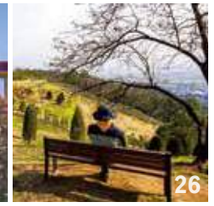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과거 소래염전의 모습이다(경기문화재단 제공, 촬영 연도 미정). 1999년 폐염전은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는 2020년 '자연마당'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거듭난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9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신봉훈(소통협력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굿모닝인천
2019.11 Vol.311

CONTENTS



04 **인천 미소**
지역 문화를 전파해 주세요 外

05 **미디어&스토리**
PPT 프리 시대가 주는 시사점

06 **사람과 공간**
⑪ 인일철공소

10 **인천의 맛**
③ 송림동 '닭알탕'

16 **원도심 재생 공간**
개항로

20 **핫 플레이스**
뚜벅뚜벅 개항로 즐기기

22 **공감 인천**
'동구~중구 연결도로' 민관 협의

26 **계양산성**
둘레길 탐방

30 **시민 출사**
가을 풍경

34 **살고 싶은 도시**
⑪ 싱가포르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작가 양진채

40 **시민 시장**
월미도 상인 염정숙

42 **문화 캘린더**
미추홀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外

44 **이미지 뉴스**
인천愛(애)뜰

46 **시정 뉴스**
국내 첫 드론인증센터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外

50 **의회 뉴스**
톈진시와 우호관계 발전방안 논의 外

52 **드로잉 인천**
수인선 협궤열차 - 고윤 작가

54 **인포 박스**
국제도시의 눈부신 발전상을 한눈에 外

58 **인천의 아침**
배다리

59 **인천사진관**
안현주 독자님 가족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지역 문화를 전파해 주세요

<굿모닝인천>을 즐겨 보는 70대 애독자입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굿모닝인천>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은퇴한 노년층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회나 크고 작은 문화 소식이 더 많이 실렸으면 합니다.

———— 유경애 미추홀구 인주대로

지하철에서 만나는 인천 이야기

매달 지하철에서 만나는 <굿모닝인천>이 그리 반가울 수 없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인천의 다채로운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독자들이 많은지, 금방 동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객차 내 비치 수량을 늘려 더 많은 이용객이 <굿모닝인천>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양인덕 남동구 인주대로

공항 가는 길이 편리하도록

인천은 공항을 품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항 이용객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항 직통 리무진 버스 등 인천 시민이나 타 지역 이용객이 편리하게 공항을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됐으면 합니다. <굿모닝인천>이 교통 인프라 기사를 다뤄서 교통 상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박성수 미추홀구 문화로

이 가을, 좋은 영화 한 편 어때요?

오랜 삶의 터전이었음에도 인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면 마치 인천에 대해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몰랐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설렙니다. 가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볼만한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하는 소소한 코너가 신설되면 어떨까요?

———— 한상대 부평구 경인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PPT 프리 시대가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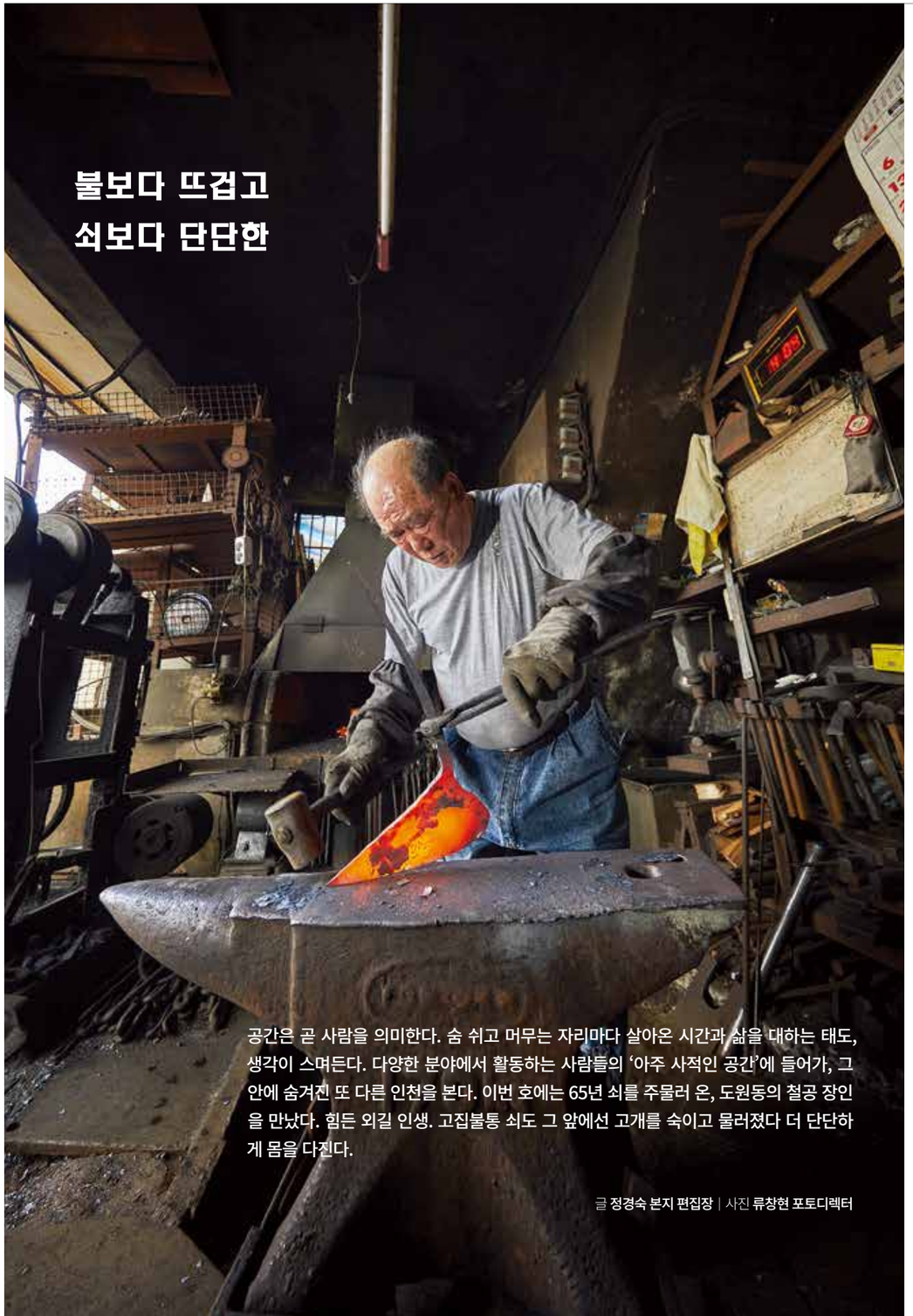
글 장훈 시 소통기획담당관

10년도 넘은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 어느 홍보 기획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해 왔다. 직무 면접을 하고 난 후,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파워포인트 때문이었다. 당시 민간 회사 대부분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일했다. 특히 광고와 홍보 업체에서는 그 의존도가 더욱 커 보였다. 공공 부문에서 '훈글'로만 일해 왔던 내게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만큼의 부담감이었다. 결국 입사 제안을 거절했다. 말이 거절이지 포기인 셈이었다. 그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파워포인트의 기본 활용법은 습득했다. 그렇게 만든 PPT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

최근 파워포인트 금지를 선언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혁신 기업들은 물론이고 토요타나 현대카드 같은 제조업과 금융업 회사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퍼진다. 기업들은 PPT 대신, 서술형 글쓰기로 토론이나 발표 자료를 만들라고 지침을 내린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현란함 대신 단순하지만 핵심을 파악하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파워포인트는 특성상 주제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며 치장과 분칠에 중점을 두어 알맹이 없는 자료가 되기 십상이다. 외부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내부 소통용으로는 부적합하며 오히려 위기마저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2003년 2월 발생한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 폭발 사고 원인 중 하나가 PPT 소통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날개 손상의 발생 위험에 대해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과소평가했다고 보고했다. 제목 선택, 정보 배열 및 글머리 표 크기에만 신경 썼고 경영진이 이미 믿고 있는 바를 강조하고 위험을 시사하는 불확실성과 추정은 빼버렸다. PPT의 흐름만을 따라감으로 비판적 사고가 약해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과 치장보다는 내용과 콘텐츠이다.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토론하는지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다. 회의 자료이든 보고서이든, 또는 대내외 발표 자료이든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쉽고 정확하고 내실 있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공정책 또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과장된 치장은 버리고, 누구나 알아야 할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소통하는 공공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인천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 나갈 것이다.



불보다 뜨겁고 쇠보다 단단한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천을 본다. 이번 호에는 65년 쇠를 주물러 온, 도원동의 철공 장인을 만났다. 힘든 외길 인생. 고집불통 쇠도 그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물러졌다 더 단단하게 몸을 다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팔순이 넘은 나이지만, 강철 같은 모습이 영락없는 대장장이다. '인일철공소'의 송종화 장인.

나이가 드니 자꾸 작아진다며
그가 깊게 주름 팬 손을 보여준다.
그 손으로 휘두르던 쇠망치도
세월에 닳아 무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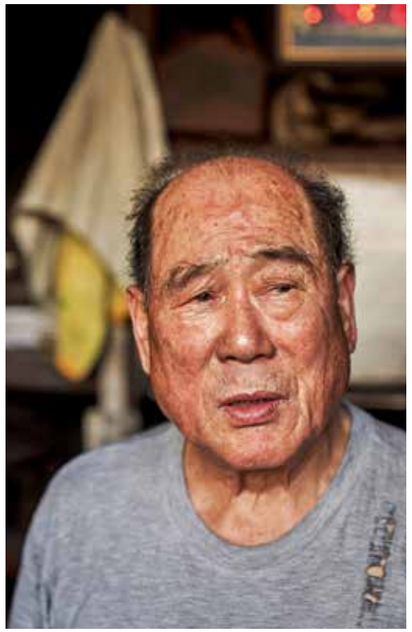
도원동 철공소 거리.
이곳에서 망치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 두렵다.
그가 인천의 마지막 대장장이가
아니길 바란다.

폭격 속에서도 삶을 잇다

'쿵, 윙윙~ 끼이익~' 귀를 찢는 듯한 굉음 소리에 순간 몸서리가 쳐진다. 미추홀구 도원동 철공소 거리의 '인일철공소'. 쇠를 때리고 깎는 기계 소리가 굴속 같은 공간을 뒤흔든다. 노장은 엄청난 굉음과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묵묵히 쇠를 다룬다. 아직 말 한마디 섞지 않았지만, 그의 넓은 등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탕탕탕~' 망치로 쇳덩이를 내리치는 그의 손에 한껏 힘이 실린다. '인일철공소' 송종화(81) 장인. 팔순이 넘은 나이지만, 강철 같은 모습이 영락없는 대장장이다. 시뻘겋게 달궈진 쇠붙이가 망치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제 모양을 찾아간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번진다. 그리고는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로 쇳덩이가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차마 말을 건넬 수 없어, 작업을 마칠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알은체를 한다. 주문받은 일인가, 물으니 가끔 찾는 손님이 있어서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한다. 평생 망치질하며 살아온 세월, 이젠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자신에게 관대한 시간을 사는 건 그에게 게으름이고 사치다.

1953년, 열다섯의 나이에 도원동 '황곡철공소'에서 처음 쇠망치를 손에 쥐었다. 스승의 이름은 권원. "선생을 잘 만났어. 그분이 '왜정' 때부터 일을 꼼꼼히 잘했지. 이 일대에서 농기구 잘 만들기로 꽤 이름났었어." 제물포에서 태어나 살던 집이 6·25전쟁 때 폭격을 맞았다. 할머니와 어린 4형제는 아침을 먹다, 맨몸으로 뛰쳐나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삶을 구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나서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장장이의 길로 들어섰다.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우는 대장일

제물포 개항장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길이었던 도원동 참외전로. 황골고개라고 불리던 이 거리엔 철공소와 철물점이 줄지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전쟁 후로 철공소가 하나둘 터를 잡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으며 황해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모여들었어. 그중에 북에서 대장일을 하다 온 사람도 있었지. 먹고살려고 농기구며 난로, 연통 등을 만들어 내다 팔았어."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에 밀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수도국산 자락에, 고향을 잃은 피란민까지 얽히고설켜 살았다. 북에서 갈고닦은 대장 기술도 함께 흘러들었다.

"자고로 대장일을 하려면 힘만 있어선 안 돼. 머리가 좋아야 하지. 눈썰미가 있어야 하고, 손재주도 있어야 해. 열 사람이 배우면 한 사람도 되기 어려운 게 대장장이야." 그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쇠도 질과 강도가 다 다르다고 했다. 그 성질에 맞춰서 쇠를 다스리고 물건을 빚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야끼(やき)'야." 담금질하는 열처리 과정을 말한다. 모양을 아무리 잘 낸들 소용없다. 담금질을 잘해야, 쇠가 무르지도 딱딱하지도 않고 '단단'해져 제구실을 한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쇠를 불에 달구고, 때리고, 물에다 넣어 직접 감을 잡아야 알지." 65년 한길만 걸어온 장인조차, 대장일은 죽을 때까지 다 못 익힌다며, 지금도 배우고 있다 했다. 그만큼 힘든 길이지만, 고집불통 쇠도 그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물러졌다 더 단단하게 몸을 다진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한 행인이 쇠를 다루는 그를 보며 말한다. "저게 바로 고려청자를 빚는 정신이지. 저분은 고려청자 장인과 다를 게 없어." 술 냄새를 훅 끼치며 하는 말인데도, 허튼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묵묵히 걸어온 65년 외길 인생,
그의 뒷모습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흔밖에' 안 된 도원동의 대장장이들

한창때는 옛 인천공설운동장(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주변을 시작으로, 양쪽 길을 따라 대장간들이 마주 보고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서울 을지로에 있던 옛 서울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으로 가 대장간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1960년대 경인선 복선화 공사로 원래 철공소들이 있던 한쪽 길을 철길에 내주었다.

송종화 장인은 1976년 지금의 자리로 왔다. 중간에 다른 도시로 가 부동산에 손을 대고, 연안부두에서 닻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왔다. 바로 옆 '인천철공소'에선 막냇동생 송종원(77) 어르신이 쇠를 만진다. 둘째 형인 송종화 장인으로부터 대장일을 배웠다. 쇠를 불에 굽다 녹여 떨어뜨리는 바람에 매도 많이 맞았다. 쇠를 깎다 쇳가루가 눈에 박혀서 십대 때 한쪽 눈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도, 형을 원망한 적도 없다. 아버지 같은 형을 자랑스러워하며 지금도 의지하고 산다. "사연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장일 배워서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으니까. 그 양반이 여든이 넘었는데 아직 힘이 좋아."

좋은 시절도 있었다. 1970, 1980년대는 인천제철(현 현대제철) 같은 큰 공장에서 주문하는 부품을 만들었다. 들어오는 대로 일을 다 했다. 사람을 셋이나 뒀다. 공정이 까다로운 작업을 마치면 가슴이 부듯했다. 송종화 장인이 호기롭게 말한다. "예전에 인천제철에 들어가는 볼트를 만들었는데, 크기가 한 육각형 성냥갑만 해. 각을 맞추면서 홈을 하나 달아야 하는데, 그게 참 만들기 어려웠지. 일을 마치면 '내가 작품을 만들었구나, 기술자가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다 지난 일이다.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던 공장들이 기계를 쓰고,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일이 끊겼다. "어쩌다 한번 일이 들어와. 기약이 없어. 허허." 대장간은 거의 문 닫고 이제 인일, 인천, 인해, 도원 철공소 네 곳만 남았다. 거의 그로부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다. "전에 같이 배우고 일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 지금 이 일대 대장장이들은 거의 내가 가르친 사람들, '일흔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야. 내 연조가 가장 깊지." 언젠가는 공주의 한 대학에서 쇠를 배웠다는 젊은이가 찾아와 일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며칠을 못 버티고 나갔다.

쇳가루 자욱한 철공소에 자신을 가두겠다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가 나이드니 자꾸 작아진다며 깊게 주름 팬 손을 보여준다. 그 손으로 휘두르던 쇠망치와 받침으로 쓰던 쇳덩이 '모루'도 세월에 닳아 무뎌졌다. 최근 1970년대부터 '배 못'을 만들던 동구 신일철공소가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곳은 2007년 대장장이가 눈감으면서 먼지 속으로 침잠했다. 언젠가 도원동 거리에도 망치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 두렵다. 그가 인천의 마지막 대장장이가 아니길 바란다.

힘세고, 머리 좋고,
눈썰미와 손재주도 있어야 한다.
열 사람이 배우면 한 사람도
되기 어려운 게 대장장이다.

내일을 살아갈 힘

닭알탕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인천의 먹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세 번째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부른 위로를 건네는 송림동 '닭알탕'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노동자들의 '소울 푸드'

"이래 봬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소문난 맛이에요." 1970년대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건설 노동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던 시절, '닭알탕'은 현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타향에서 고된 밥벌이를 하며 그리워하던 '한국의 맛'이다. 25년 전부터 송림동에서 닭알탕을 끓여온 고강심(62) 씨는 말한다.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인천에서 먹던 닭알탕이 그립다' '인천에 가면 꼭 먹어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해요. 중동에서 일한 부산 사는 양반이 수소문해 온 적도 있어요." '도대체 닭알탕이 뭐길래.' 먼 길을 찾아온 끝에 허름한 가게를 맞닥뜨리고는 고개를 갸웃했을 테다. 하지만 이내 칼칼하고 진한 국물을 맛보고는 탄성을 질렀으리라.

닭알은 죽은 암탉의 뱃속에서 꺼낸 알이다. 며칠만 있으면 달걀이 될 것을, 그전에 닭을 잡아 노른자만 뭉쳐있다. 보통 노른자는 퍽퍽한데 닭알은 쫀득하고 탄력이 있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노란 알과 알집을 육수에 넣어 얼큰하게 찌개로 끓여 먹으면 가슴까지 후끈하다.

송림동 닭알탕 골목의 역사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너도나도 가난했던 시절, 전국의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공장 굴뚝 연기를 따라 인천으로 왔다. 닭알탕은 인천제철(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성목재 등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달래고 빈속을 채우던 '소울 푸드'였다. 한 냄비 푸짐하게 끓여도 단돈 1,500원. 가진 사람들이 살코기를 먹는 동안, 가난한 이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든든하게 먹어, 내일을 살아갈 힘으로 비축했다.

송림동 닭알탕은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던 '소울 푸드'였다.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 한잔,
오후에 또 새벽에 일 마친 사람도 한잔.
하루 종일 술 마시던 동네가 바로 여기다.

1 닭알탕은 죽은 암탉의 뱃속에서 꺼낸 알과 알집이 주재료다.
2 주인장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얹은 밥. 낙지볶음과 함께 나간다.(창석닭알탕)
3 1971년 4월 현대시장이 들어서기 전엔 노점상이 즐비했다. 죽은 암탉의 뱃속에서 꺼낸 알들을 팔았다.
4 창석닭알탕의 고강심(왼쪽) 대표와 식당 식구들.

가진 사람들이 살코기를 먹는 동안,
가난한 이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든든하게 먹어,
내일을 살아갈 힘으로 비축했다.

추억 한 잔,
그리움 한 모금

· 밤낮으로 일하는 걸 당연히 여기던 시절이었다. 3교대 근무자들이 퇴근길마다 몰려드니 가게는 동트기 전부터 늦은 새벽까지 발 디딜 틈 없었다. "하루 종일 술 마시던 동네가 여기야.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 한잔, 오후에 또 새벽에 일 마친 사람도 한잔. 죄다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었어. 싸고 푸짐하지. 막걸리까지 마시면 또 얼마나 든든해." 얼근히 취기가 오른 식당 단골 어르신들이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인생의 쓴맛이 깊을수록 술맛은 달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은 오늘도 따듯한 식사와 술 한잔으로 지친 하루를 위로받는다.

뜨거운 정으로 맺은 인연이다. 정봉덕(79) 할머니는 44년 전 이 골목에 식당을 차렸다. 당시 돈이 없어서 100원짜리 잔술 한 잔만 시키던 손님도 많았다. "커다란 솥에 닭알탕을 끓이고 있으면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들 봐요. 내 안쓰러워 한 국자씩 떠서 나눠줬지. 그러면 국물을 홀짝 마시곤 '땡그랑' 소리를 내며 100원짜리 동전을 두고 나가. 그런데 한참 일하다 돈을 챙기러 가면 다시 가져가고 없어." 얼마나 배고팠으면…. 시커먼 공장 안에서 거대한 쇳덩이를 움직이며 온 힘을 쏟아냈다. 주머니가 비었어도 일단 주린 배를 채워야 했다.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외상으로 파는 일이 허다했다. 손님들이 돈 대신 주민등록증에 입던 옷까지 벗어두고 갔다. 그러면 괜찮다며 옷을 도로 입혀 보냈다. 손님은 고마워하면서도 그 뒤로 다시 가게를 찾지 않았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준 거지."

속 썩인 '놈'과 착한 사람은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청년이었던 손님이 세월에 깊이 주름살 파인 채 손주 손을 잡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떨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서로 부둥켜안고 반가워한다. "단골들이 앞으로 20년은 더하라고들 해. 그럼 내가 100살인데. 허허." 그들이 사고파는 건 돈으로 계산하는 음식이 아니다. 그리움이고 추억이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은,
오늘도 따듯한 식사로 지친 하루를 위로받는다.

감자탕, 닭볶음탕, 생선알탕.
그 시절 메뉴는 오직 닭알탕이었지만
지금은 시대 따라, 입맛 따라 식단이 다양해졌다.

손님들이 삶을 달래는 동안,
주인들은 치열한 삶을 일구었다.
사진은 형제닭알탕의 정봉덕 할머니.

일하는 게 삶의 전부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손님들이 삶을 달래는 동안, 주인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냈다. 정 할머니는 이 골목의 최고령자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 그의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30대부터 지금껏 식당에 틀어박혀 장사를 했다. 4남매 다 대학까지 학비를 대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파트까지 사 줬다. 그 사이 어머니의 곱던 얼굴은 나이테 같은 주름으로 뒤엎였다.

고강심 씨는 부지런하기로 이 골목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오전 10시에 문 열고 밤 12시가 돼서야 하루를 마무리한다. 뜨거운 불솥 옆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밥 짓고 음식을 만든다. 봄꽃처럼 화사했던 시절도 없었다. 열일곱 살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인천으로 와 이건산업 합판 공장에 들어갔다. 화장실만 갔다 와도 합판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일요일 아침에 공장으로 출근하면 월요일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36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잠도 안 자고 일했어요. 그때는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는 쉬는 법을 모른다. 여유와 게으름은 사치일 뿐. 어려움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 손주들 학비까지 당신 손으로 보태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어머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닭알탕 골목에 하나둘 불빛이 차오른다. 퇴근길 한잔 생각에 들른 직장인들,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 추억을 찾아온 단골들. 저마다의 속내를 내려놓고 어울리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가 된다. 술잔이 오가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사이, 밤이 깊어간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한 손님이 말한다.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삶의 노고를 달래주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에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곳. 우리가 여전히 후미진 송림동 골목을 찾는 이유다.

추억이 보글보글, 송림동 '닭알탕' 골목

구수한 찌개 냄새가 골목 가득 들어찬다. 송림동 닭알탕 골목. 50여 년 전 거리에 첫 가게가 문을 열고 닭알탕 집이 하나둘 생겨났다. 맨 처음 간판을 내건 '공락주점'은 사라졌지만 창석, 형제, 현대, 송림, 마산 등 다섯 집은 지금도 성업 중이다.

개항기 나라 안팎으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육류의 수요도 늘었다. 1916년 9월 동구청 자리에 인천도축장이 문을 연다. 도축장은 1963년까지 동구 송림동에서 남동구 구월동을 거쳐 부평구 십정동에 자리 잡았다. 그 덕에 다른 지역에선 구하기 힘든 식재료로 버리는 것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1971년 4월 현대상가가 들어서기 전엔 노점상이 즐비했다. 죽은 암탉의 뱃속에서 꺼낸 알들을 팔기시작 했다. '공락주점'의 문영자 할머니가 그 알을 구해다 찌개로 얼큰하게 끓여 내놨다. 이후 십정동에서 알을 사 오기도 했다. 지금이야 가게까지 배달해주지만 당시는 주인장들이 직접 왔다 갔다 했다.

닭알탕은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허기를 채우는 한 끼 식사로 딱 좋았다. 지금도 만 원짜리 두 장이면 서넛이 둘러앉아 추억을 배불리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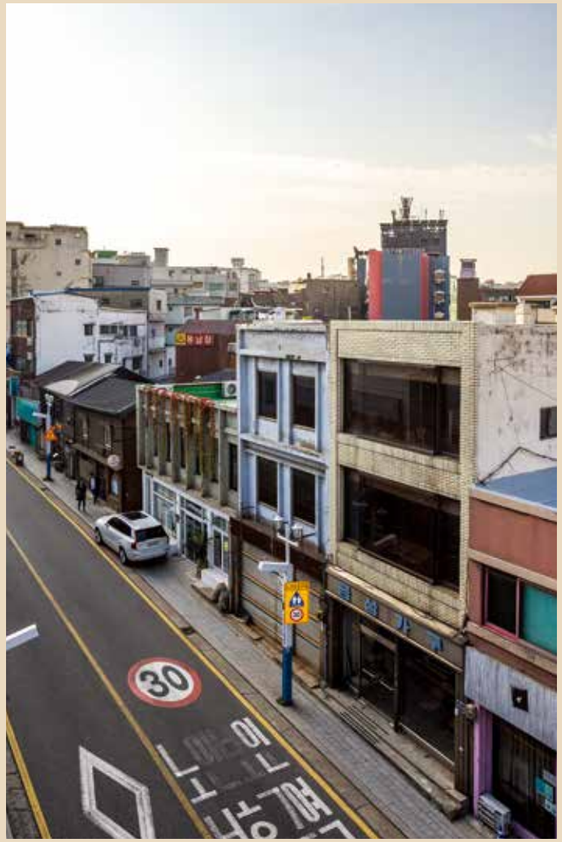
그 시절 메뉴는 오직 닭알탕이었지만 지금은 시대 따라, 입맛 따라 식단이 다양해졌다. 생선알탕, 매운탕, 감자탕, 낙지볶음…. 모두 한술 뜨면 멈출 수 없는 맛이지만, 그중 최고는 닭알탕. 탱글탱글한 알과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의 조화가 일품이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로하던 소중한 한 끼에서, 추억의 별미가 됐다.

어둠이 깔리고,
닭알탕집에 사람이
하나둘 모여든다.
저마다의 속내를 내려놓고
어울리다 보면
누구라도 친구가 된다.
술잔이 오가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사이, 밤이 깊어간다.

송림동 닭알탕 골목

인천 동구 샛골로 169
옛 현대극장과 송림동 서흥초등학교 사이,
현대시장 건너편에 다섯 집이 사이좋게 붙어 있다.

창석닭알탕 Ⓣ 032-764-6160 **형제닭알탕** Ⓣ 032-766-0171 **송림닭알탕** Ⓣ 010-8501-3922
마산닭알탕 Ⓣ 032-773-6537 **현대닭알탕** Ⓣ 032-766-8921



오래된 산부인과 건물을 개조해 카페로 변신한 라이트하우스.

1930년에 건축된 건물을 문화 카페로 되살린 싸리재.

중구 개항로

낡고 오래된 노포와 원도심이란 이미지가 뉴트로 감성이라는 새로운 유행의 선두주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금 중구 일대는 '개항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100년의 역사와 인천의 콘텐츠를 누리다

최근 중구 개항로의 모습이 달라졌다. 인적이 드물던 거리에 젊은이들이 눈에 띄더니,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불 꺼진 텅 빈 건물은 뉴트로풍의 트렌디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한때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저물어 간, 유동 인구 '제로'에 가까웠던 옛날 거리가 이제는 가족과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1960년 4월 19일 싸리재.(위) ⓒ LIFE 잡지
1962년 화폐개혁 당시 싸리재에 위치한 조흥은행 인천지점.
(사진 제공 유지우)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개항로

지금의 경동사거리에서 애관극장 앞을 지나 배다리 마을로 넘어가는 길목, '싸리재'라고 불렸던 '개항로'는 1970,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며 다녀야 할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다. 웨딩 숍, 가구, 극장 등 사람이 모일 만한 요소는 모두 갖춰 서울의 명동 못지않은 상권을 이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고, 2000년대 들어 주요 상권이 주안이나 부평 등으로 옮겨가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동 인구가 전혀 없던 거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뜻을 함께하는 20명이 모여 동네를 살리는 '개항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리 분위기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노포와 원도심이란 이미지에서 뉴트로 감성이라는 새로운 유행의 선두 주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금, 중구 일대가 '개항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재생 공간

“세월이 흐르면서 슬럼화가 진행된 개항로가 안타까웠습니다. 초중고를 인천에서 다닌 저는 이곳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처음 리바이스 청바지를 산 곳도 이곳이고, 대학교 때 여자 친구와 영화를 보러 온 곳도 애관극장이었으니까요.” ‘개항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창길(42) 대표는 개항로를 옛날처럼 사람이 많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1910년대 건물이 남아 있는 이곳이 개항과 산업화 등의 역사를 거친 하나의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곳이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처음엔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과 뜻을 공유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또 좋은 사람도 소개받으면서 마음이 같은 스무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시작인 셈이죠.” 건축가, 디자이너, 요식업자, 조경 전문가, 카페 운영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각자 돈을 투자해 건물을 사고, 사들인 건물에서 직접 카페, 갤러리,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100년도 더 된 과거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곳에 현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넣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개항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창길 대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만의 콘텐츠

“영국 유학 시절 파티에 갔는데 할아버지부터 젊은이까지 함께 놀더라고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은 노포 아닐까요? 노포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곳. 과거와 현재, 옛 거리와 현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 그것이 인천 중구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노포를 소개하고 근대 문화를 결합한 트렌드 있는 카페나 식당 등을 입주시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작업을 해 나갔다. 노포와 협업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노포에서 제작한 목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쫄면을 처음 만들었다는 광신제면소의 면을 이용한 국숫집이 생겨나고, 1978년도 개업한 인천당의 수제 과자를 제공하는 가게도 문을 열었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나지만, 결코 카피할 수 없는 건 바로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지요. 그래서 인천만의 콘텐츠로 채워나간 겁니다.”

조명과 전구를 콘셉트로 한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실제로 전구를 만들었던 기계를 볼 수 있다.(위)
우리나라에서 쫄면을 최초로 만든 광신제면소와 콜라보한 면으로 온면을 만들고 있는 ‘개항면’.(아래)

인문학 강좌, 도시건축학 강의, 그 외 다양한 문화 소모임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는 문화 카페 ‘싸리재’와 오랜 세월 인천에 대한 애정으로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차영 대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 공간

개항로에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자는 목소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2014년부터 경기의료기 건물과 한옥을 리모델링해 ‘싸리재’라는 문화공간 카페를 운영하는 박차영(70) 대표는 단기간에 확 뜨는 핫한 지역으로 상품화되기보다는 인천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건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만 찍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먼저 공간에 대한, 인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항로에서 문화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정희석(45) 목(木) 조형 작가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계 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되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재생이 아니라 관계 재생, 문화 재생이 먼저 필요했던 곳이죠. 이 지역이 오랜 기간 재개발 소문만 무성했는데,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항로는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장기간 방치됐던 지역이다. 이런 방치가 길어짐으로써 오히려 예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남았고 다시금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부디 이곳 개항로에 특별함을 지키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건강한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정희석 대표는 ‘잇다스페이스’가 문화를 매개로 작가와 지역 주민들을 연결해 주는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뚜벅뚜벅 개항로 즐기기

낮은 건물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폭이 좁은 차도, 길옆으로 나무줄기처럼 뻗어 있는 수많은 골목, 그 안에 빈 집과 새로 오픈한 가게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개항로가 뉴트로(Newtro·신복고)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개항로의 핫 플레이스를 소개한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개항로 가는 길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10분 거리다. 구도심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있고 인근 대형 병원이나 교회 등에 대규모 주차 시설이 있어 차량 이용도 수월하다.

1. 애관극장

멀티플렉스만 다녀본 세대에게는 신기할 법한 옛날식 극장. 이곳엔 예전 유럽 극장들처럼 2층이 있다. 2층에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영화 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중구 개항로 63-2 Ⓣ 032-761-7177

2. 브라운핸즈 개항로

이비인후과였던 4층 병원 건물 구조를 그대로 살린 카페. 입구에 들어서면 옛모습 그대로 보존한 '접수 창구'를 만나다. 커피와 수제 베이커리 맛집.
중구 개항로 73-1 Ⓣ 032-777-7506

3. 플레이스막 인천

1960년대 양장점 건물을 개조한 전시 공간. 시각 예술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중구 개항로 75-1
Ⓗ www.placemak.com

4. 이슬옥

1910년에 지어진 가옥을 리모델링한 밥집 겸 술집. 인천 앞바다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바지락무침과 바지락전은 이 집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시그니처 메뉴.
중구 개항로 89 Ⓣ 032-777-8138

5. 싸리재

1930년에 건축된 건물을 되살린 문화 카페. 유명 뮤지션 음악부터 클래식까지 희귀판이나 소장용 LP판, 진공관 앰프뿐만 아니라 초판 발행된 문학지, 고서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커피봉봉이 시그니처 메뉴.
중구 개항로 89-1 Ⓣ 032-772-0470

6. 메콩사롱

노란색과 진한 초록색, 짙은 나무색의 조화는 마치 어느 따뜻한 이국의 여행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동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분짜, 반미 등의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하다.
중구 참외전로158번길 14 Ⓣ 010-8708-1581

7. 경동 양과점

캐릭터 마카롱과 다양한 수제청을 맛볼 수 있는 마카롱 맛집. 고풍스러운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통유리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분 좋다. 매장 앞 가득한 국화꽃은 판매도 한다고.
중구 개항로 103 Ⓗ www.instagram.com/gaehang_ron

8. 마틸다 개항로

잘 차려입고 분위기 한껏 낸 특별한 날에 어울릴 법한 낭만적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국적인 공간에서 이탈리아 요리학교 출신의 셰프가 만드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중구 개항로 105 Ⓣ 032-765-0032

9. 개항당

개항로의 달달한 '당'을 책임지겠다고 오픈한 디저트 카페. 동인천에서 성장한 주인장은 언젠가 이곳에 가게를 내겠다는 다짐을 했었다고.
중구 개항로 107 Ⓣ 070-8224-9578

10. 개항로 통닭

1937년 준공된 건물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1980년대 감성, 복고 느낌이 물씬. '통닭'으로 세대 공감이 가득한 이곳은 평일 저녁에도 손님이 가득하다.
중구 참외전로 164 Ⓣ 032-772-9292

11. 잇다 스페이스 갤러리

일제강점기 소금 창고에서 한증막, 다시 서점으로, 이후 오래 비어 있다가 창작 공간으로 변화한 곳. 매달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가 펼쳐진다.
중구 참외전로 172-41 Ⓣ 010-5786-0777

12. 개항면

광신제면소와 콜라보한 면을 사용하는 온면집. 사골, 꼬리, 잡뼈를 넣고 12시간 우려낸 진한 국물과 고명으로 올라간 푸짐한 고기 덕분에 한 끼가 든든하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 담그는 김치 맛도 일품.
중구 개항로 108-1 Ⓣ 032-773-1081

13.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일광전구가 산부인과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로, 조명이 매우 예쁘다. 전구를 활용한 전시품과 실제 전구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구 자판기도 설치돼 있다.
중구 참외전로174번길 8-1 Ⓣ 032-765-1962

아래는 길
위로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공존

하마터면 모든 게 사라질 뻔했다. 쇠뿔·배다리 마을 한가운데 너른 땅. 마을 사람도 동네 밖 사람도 넉넉히 품어주는 곳.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구간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길은 배다리·쇠뿔 동네 한복판이 아닌, 땅 아래로 난다. 온전히 남겨진 땅 위론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세상이 펼쳐진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 결정 20여 년, 공사 중단 8년 만의 결실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속도가 앗아갈 뻔한, 풍경

느릿느릿, 오래된 것들이 나름의 이야기를 지키는 동네 쇠뿔·배다리. 그 한가운데 마을 사람도 동네 밖 사람도 넉넉히 품어주는 너른 공터가 있다. 언덕 위에 이름 모를 들꽃과 코스모스가 물결을 이룬다. 그 공간을 밀어내고 차가 씽씽 달리는 도로가 날 뻔했다. 이제 길은 그 아래로 난다. 한 동네가 두 동강이 나지 않아, 속도가 앗아갈 뻔한 풍경을 붙잡을 수 있어 고맙다.
깊어가는 가을, 이곳에서 지난달 19일 '쇠뿔마을 장마당축제'가 열렸다. 꽃밭에 천막을 치고, 막걸리 마시고, 부침개 해 먹고, 부녀회에서 만든 빨랫비누도 팔고 사고…. '우리 동네 문화축제'로 시가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된 소박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행사를 기획한 정명섭(42) 활동가는 이 동네 토박이다. "군대 갔다 오니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없었어요. 길을 내기 위해 집을 허물어 이사 간 거지요. 찻길이 나는 걸 반대했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하고, 잊힐 지난 시간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도 집도 골목길도 사라졌지만, 땅을 남겨두어서 기억을 추억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다음 날 풀밭 위에선 작은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원래 쇠뿔마을 장마당축제에서 선보이려고 했다. 이 마을 주민인 경인방송의 안병진(43) PD는 지난여름 조점용(75) 미림극장 전 영사 기사와 올가을 영화를 상영하기로 약속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땅에는 코스모스가, 스크린에는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해바라기'가 만발하다.
"차도는 지하로 나기로 결정됐고, 도로가 될 뻔했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가야지요. 복잡한 일은 잠시 접어두고 영화 한 편 함께 보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쇠뿔마을 장마당축제(사진 제공 정명섭)

배다리 풀밭 위 작은 영화 상영회

그대로여서 고마운 동네

서로 오해하고 마음의 담을 쌓은 시간이 20여 년이다. 도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시는 주민에게 도로의 필요성만 강조하니 마음에 와닿기 어려웠다. '동구~중구 간 연결도로'는 '인천의 남북 축을 잇는 2.92km의 핵심 도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해 사람과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착한' 의도였다. 1999년 9월 사업을 결정하고 2001년 첫 삽을 떴다. '연수구(송도국제도시)~중구~동구~서구(청라국제도시)' 4개 구간으로 2011년까지 대부분 준공됐다. 3구간 쇠뿔·배다리 지역만 남긴 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8년째 공사가 중단됐었다. 동네 한가운데를 길이 뚫고 지나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훼손될까 밤잠을 설쳤다.

쇠뿔·배다리는 개항 후 외국인들이 응봉산 자락에 자리 잡으면서 밀려온 사람들이 모여 이룬 동네다. 1907년엔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 '창영초등학교'를 조선인의 손으로 세웠다. 성냥, 고무신 등을 만드는 공장에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을 흘렸다. 1960, 1970년대에는 헌책방 거리로 유명했다.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도 이 골목에서 헌책방을 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건재한 아벨서점, 문화양조장 스페이스빔, 배다리 안내소 '나비날다 책방'….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그 시절 추억은 빛바래지 않고 윤기를 더하고 있다.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동네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20여 년 엉킨 실타래, 그 시작을 찾다

개발과 보존, 그 간극을 좁히고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했다. 도로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였다. 지난 7월,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무작정 쇠뿔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갔다. 사는 이야기 들어드리고 텃밭 일을 도우며 주민과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소통'은 마주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민관이 함께 공동의 목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

시와 동구의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다시 답을 써 내려갔다. 주민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또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2019년 8월 21일,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시와 시민의 뜻이 모아졌다. 도로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 난다.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주민감시단을 꾸리고, 매연과 소음은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50km로 설계하며 지하화한다. 지상 공간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 숨을 불어넣기로 했다. 사업 결정 20여 년, 공사 중단 8년 만의 결실이다.

그렇게 20년 엉킨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이제, 시민 뜻을 모아 하나하나 풀어갈 차례다. 조금 더디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보폭과 호흡을 맞추며.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지상이 아닌 지하로 도로가 이어진다.

지하 차도 상부 부지에 대한 '시민 목소리'

도시를 만드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도시는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시민에게 '동구~중구 연결도로' 지하 차도
그리고 상부 부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든 목소리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응원부터 쓴소리, 곧은 소리까지,
계속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줄곧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애정이 크다. 그만큼 사라진 골목에 대한 아쉬움도 많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다. 도로가 지하로 나고 땅이 남겨져서 다행이다. 그 위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 동네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다. 그분들에겐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체육·문화·편의 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부지 한편엔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길 바란다. **정명섭 활동가**

창영초등학교를 나와 이 동네에서 자랐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동네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함께하고 싶다. 도로를 낸다는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났고, 그 사이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윗세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도로 위 공간은 '모두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길 바란다. **박성준(33) 카페 멀씨 대표**

배다리 공유지에서 업사이클(Upgrade) 아트를 주제로 한 야외 전시 '페트(PET)'를 열었다. 생활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젝트인 만큼 자연 안에서 펼쳐져 더 의미 있었다. 주민이 100% 원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가 지상이 아닌 지하로 나는 건 잘된 일이다. 동네 한가운데 펼쳐진 녹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난 공간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꾸미길 바란다. **이호진(44) 전시기획자·사진가**

도로가 지하로 난 건 환영한다. 하지만 지하 차도 출입구에 사는 마을 주민에 대한 배려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환경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시민이 한마음으로 배다리 땅 위로 도로가 나는 걸 막아왔다. 배다리 주민뿐 아니라 주변 동네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지상은 한정된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진정한 의미의 공유지가 되길 바란다. **장희숙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소장**

주민 편의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공유지로서 가변성 있게 열어두면 좋겠다. 규정된 틀에 가두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배다리 공유지에서 아이들과 자라는 풀을 관찰하고, 야외 전시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이곳은 하나의 광장이다. 동네 주민과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산별곡 '나비날다 책방' 대표**

동구 주민이고 미림극장에서 35년 영사기를 돌렸다. 배다리 빈터에서 영화를 상영해 의미 있었다. 하루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코스모스가 잔뜩 핀 이 아름다운 공간이 뚝 안 잘리고 땅속으로 길이 나서 다행이다.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길을 내는 게 도시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점용(75) 미림극장 전 영사 기사**

산성 따라 걷다 보니 역사 공부가 저절로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다. 가을의 바람과 햇볕은 사람들을 밖으로 부른다. 멀리 떠나는 것도 좋지만 도심을 벗어날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둘레길을 걸어보자. 둘레길은 등산처럼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천천히 여유 있게 사색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에 그만이다. 역사를 배우면서 가을을 즐길 수 있다는 계양산성 둘레길을 찾아 나섰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산성길 코스

계양산성박물관
↕
육각정
↕
집수정
↕
북문지
↕
팔각정
↕
하느재
↕
계양공원

도심 가까이 자리 잡은 역사의 산길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터라 동네 뒷산 정도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했지만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에서는 강화 마니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나 계양산성 둘레길은 길이 험하지 않고 평탄해서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이번 둘레길 걷기엔 용옥선(55) 해설사가 동행했다.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鎭山)으로 옛날에는 수주악(樹州岳), 안남산(安南山)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계양구는 75%가 녹지 지역인데, 오늘 걸을 둘레길은 계양산성 위주로 계양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계양산성 둘레길은 내년 초 개관할 계양산성박물관에서 시작해 계양산성터, 팔각정, 하느재, 계양공원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입구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니 오른쪽으로 계양구 시내와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로는 고구려 시대의 계양구 이름인 '주부토'를 기념해 '주부토로'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편백나무길을 지나게 된다. 아직 어린 나무이지만, 곧 시원한 피톤치드 숲길이 될 귀한 몸이다.

계양산성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인천 시내는 물론이고 북한산, 김포, 일산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드디어 만난 삼국 시대 산성

기분 좋은 숲길을 지나면 산성으로 오르는 층계가 시작된다. 끝없이 이어진 층계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탄력이 붙으면 발걸음은 금세 가벼워진다. 앞서간 이의 뒤꿈치만 쳐다보며 걷기를 반복하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이 바뀌는가 싶더니 순간 눈앞에 탁 트인 초록 초원이 펼쳐진다. 넓고 푸른 초원에 눈과 가슴이 시원해진다.

"저기 등산로 왼쪽으로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인천시 기념물 제10호인 계양산성의 흔적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원래 5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축성 형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공원으로 조성 중인 계양산성 제2차 발굴지랍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를 지녔으나 그동안 산을 오르는 길로 사용되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성곽의 시설로는 성벽 일부만이 확인되었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성문, 치성(雉城), 집수정(集水井), 건물터, 구들 유구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 작업에서 찾아낸 유물과 자료들은 내년 초 개관하는 계양산성박물관에 전시된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계양산성

계양산성은 제일 높은 봉우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봉(主峰)의 동쪽에 있는 봉우리를 에워싸는 형상으로 축조된 테뫼식(山頂式 : 마치 띠를 두르듯 산 정상부를 빙 둘러 가며 쌓아 올린 것) 산성이다. 한강 하류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고 고려 시대에 와서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다. 조선 시대에는 부평도호부와 불과 2리 밖에 있는 산성으로서 역사, 교통, 통신,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발굴 조사에서 주부토(主夫吐)라고 쓰인 기와가 나온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산성의 둘레는 약 1.2km. 성벽의 외부는 잘 다듬은 돌로 약 5m 높이로 쌓아 올리고, 내부는 흙으로 쌓았다. "계양산성은 겉은 반듯한 돌, 안은 돌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성 안쪽을 흙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아도 한번에 무너지지 않고 오랜 세월 더 단단해지며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한눈에 봐도 전략적 요충지다. 사방을 둘러보니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북쪽으로는 한강과 행주산성 그리고 일산 신시가지가 건너 보인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과 야트막한 산봉우리 그리고 평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김포평야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마치 잠자리 떼 같다.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시야다.

현재 공원으로 한창 단장 중인 계양산성

1

2

3

계양산성박물관에서는 논어 글귀가 확인된 [1]삼국 시대 목간, 삼국 시대의 대표적 토기인 [2]원저단경호, 계양의 가장 오래된 지명인 [3]'주부토' 명문이 새겨진 기와, 각종 토기 편을 통해 계양산성이 삼국 시대에 축조된 성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와 함께 누리는 자연

겹겹의 세월 속에 아스라이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는 성터지만, 여전히 계양산성은 옛 사람들의 찬란했던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다. 가늠하기 힘든 세월의 때가 묻어 있는 돌덩어리들은 서로 견고하게 버티어주며 성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산성을 옆구리에 끼고 다시 언덕을 오른다. 왼쪽 시야로 마치 드론을 띄워 보는 듯 계양구 도심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팔각정과 꽤 넓은 너럭바위가 나온다. 이곳은 봄이 되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고 한다.

팔각정에서 하느재로 넘어가는 길, 걷는 내내 계양산성을 설명해 준 용옥선 해설사는 식생에 대해서도 만물박사이다. 방부제 성분이 있어서 망개떡을 싸는 데 사용된다는 청미래덩굴과 열매는 팥을 닮고 꽃은 배나무를 닮아 이름 지었다는 팥배나무 등 계양산 식생을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그와 그냥 같이 걷기만 해도 생태학습이 저절로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절로 실감한다. 하느재에서 466개의 층계를 내려오면 경인여대 쪽으로 길이 이어진다. 경인여대 후문으로 난 길을 올라가면 계양공원까지 갈 수 있다.

2시간 정도의 둘레길 탐방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함으로 꽉 채워진 기분이다. 함께 숲을 거닐면서 계양의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식물도 알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걸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둘레길 탐방 신청은 계양구 평생학습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가을 산에 올라보자.

INFORMATION

계양의 역사·생태·마을을 배우는 계양學 둘레길 탐방 해설 안내

코스 산성길, 장미원길, 귀룽나무길, 마실길, 반딧불이길, 논두렁길, 두리생태공원길
이용 시간 화·목·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시~4시
이용 인원 10명 이상
이용 안내 해설 시간 90분 소요(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차림)
문의 계양문화원 Ⓣ 032-450-5753, 계양구 평생학습관 Ⓣ 032-450-4929

인천이 가을 가을해

싱그러움 대신 고즈넉함에, 생기발랄보단 은은함에 매료되는 11월이다. 짙어가는 이 계절, 지난 4월 봄꽃 시민 출사에 이은 '가을' 편을 준비했다. 또 한 번 사뿐하게 나서자. 카메라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하는 인천의 가을 이야기. "인천이 가을 가을해."

시민 작가 **박수지**(38) 님 | 사진 경력 4년

"사진 관련 일을 하는 남편 덕에 자연스레 카메라와 가까워졌습니다. 촬영 나갈 때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도 인천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곤 합니다."

1 | 송도 센트럴파크

신도시가 가을의 옷을 입었다. 화려한 마천루로 채워진 송도국제도시 이면에는 자연이 있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센트럴파크는 대표적 친환경 공간이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지만, 특히 가을에는 황금빛 갈대와 어우러진 첨단 도시의 풍광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2 | 계양 꽃마루

대규모 주거 단지가 형성된 계양구 끝자락, 드넓은 대지 위에 가을이 성큼 내려앉았다. 이미 입소문을 탈 대로 탄 명소 중 명소로 봄에는 메밀꽃이, 가을엔 코스모스가 만발한다.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오솔길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꽃이 나인지 내가 꽃인지 헷갈릴 정도.

계양구 서운동 106-1

박수지 님의 가을 출사지

3 |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나지막한 산속, 자그마한 공원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나비'를 테마로 조성된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은 아기자기한 가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각양각색 꽃들과 알록달록 단풍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소한 가을 소풍 장소로 딱. 나비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관 관람은 덤이다.

부평구 평천로 26-47

시민 작가 **김미경**(48) 님 | 사진 경력 10년

"취미로 카메라를 든 이후, 동호회 활동으로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았습니다. 사진 블로그를 운영하며 인천 곳곳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이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김미경 님의 가을 출사지

1

1 | 드림파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계절은 만발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지천이다. 최근 핫하게 떠오른 핑크 뮬리의 분홍 물결을 뒤로하고 '인생샷' 한 컷 남기기에도 좋다. 새벽 이른 시간 방문하면 이슬 맺힌 가을꽃의 수줍은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서구 거월로 61

2 | 원적산공원

가을 색의 쌍두마차 중 노랑을 담당하는 은행나무의 성지다. 잘 정비된 공원을 둘러싼 빼곡한 은행나무가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인다. 사계절 내내 수많은 등산객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는 모습에 지루할 틈이 없다. 근처에 맛집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3 | 청라지구생태공원

노랑보다 빨강이 좋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크고 예쁜 단풍나무가 가을의 시그니처 풍경을 연출한다. 소복이 쌓인 단풍잎을 밟으며 낭만적인 산책을 즐기기에도 그만. 아침 일찍 가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는 착한 공원이기도 하다.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38

2

3

시민 작가 **김주겸**(53) 님 | 사진 경력 20년

"대학 시절부터 취미 삼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닌 후부터는 예전만 못하지만, 짬이 나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인천 곳곳으로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1

2

김주겸 님의 가을 출사지

1 | 연희자연마당

도심 속 황금 들판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명소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가을 갈대의 물결도 빼놓을 수 없다. 낮에는 햇살을 머금어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저녁이면 지는 노을에 물들어 붉은빛 장관을 연출한다. 팁 하나. 갈대 사진은 역광으로 촬영해야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다.

서구 용두산로 156

2 | 영종도 하늘정원

전국에서 사진 좀 찍는다 하면 한 번쯤은 와봤음직한 장소, 영종도 하늘정원이다. 봄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가득하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항 인근에 자리한 까닭에 5분에 한 대꼴로 날아드는 비행기를 배경 삼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중구 운서동

3 |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의 진면목은 가을에도 드러난다.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느티나무 단풍 터널은 전국 사진 애호가들을 인천대공원으로 집결시킨다. 완연한 가을이면 새벽 6시부터 삼각대가 도로를 모두 막아버릴 정도.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단풍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

남동구 무네미로 236

3

SERIES 11.

SINGAPORE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 | 면적 약 725.1km² | 인구 약 580만 명(2019년 기준)

한국 건설사가 시공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 호텔과 어우러진 화려한 도심 풍경.

스마트한 도시의 스마트한 정책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열한 번째는 싱가포르(Singapore)다.

글 강현철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 사진 셔터스톡

싱가포르가 세계적 도시인 이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섬나라이자 도시 국가다. 싱가포르를 지배했던 국가가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에 이를 정도로 지리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1965년 독립해 역사가 오래된 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리콴유 초대 총리가 장기 집권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2018년 6월에는 역사적 장소로도 유명세를 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초 정상 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려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작고 가난한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 소득 6만 달러를 상회하는, 아시아에서는 최상위 수준에 이르는 국가로 발전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히 싱가포르에는 비싼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술, 집 그리고 자동차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덕률이 적용되는 나라인 만큼 술값이 비싼 것은 이해된다. 좁은 국토 탓에 집값이 비쌀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국민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 주택 '플랫'의 경우, 정부에서 80%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 아파트나 외국인에 대한 주택 임대료는 매우 비싸다. 또한 서울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서울 절반 수준의 인구에 비해 교통이 복잡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교통량 억제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기술력이다.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머라이언(Merlion) 분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보, 디지털 사회

흔히 스마트 시티를 거론할 때 항상 언급되는 도시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스마트 시티는 2014년 11월 스마트 국가 계획(Smart Nation Initiative) 발표를 통해 시작됐으며, 이후 크고 작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계획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그리고 디지털 사회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계를 말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주문과 온라인 뱅킹을 통한 대금 지불이 디지털 경제의 한 형태다. 직접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컴퓨터상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 체계를 이루기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24억 달러를 들여 기술 창업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했다.

싱가포르 디지털 정부의 목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Digital to the Core) 정부와 진심어린 봉사를 하는 정부'다. 정부의 디지털 능력을 높여 혁신을 추구하고,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기술과 결합해 시민과 기업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사회의 목표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이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량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생활을 향상시킴은 물론 세상과 연결되며, 성공의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Cloud Forest Dome).

2018년 6월 북미 정상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의 세계적 관광지 센토사섬.

도심 속 저수지이자 싱가포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마리나 배라지(Marina Barrage).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국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생활, 교통과 운수, 건강, 디지털 정부 서비스, 창업과 기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5개 분야의 실천 계획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한 예로 NDI(National Digital Identification) 프로젝트가 있는데, 쉽게 말해 디지털 주민 등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DI는 단순한 신원 증명을 넘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의 거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야심찬 계획은 도시 생활 분야의 가상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도시를 통째로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계획이다. 제한된 국토 면적을 갖는 싱가포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최우선 당면 과제 중 하나다. 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 벤치까지 실제와 똑같은 3차원적인 디지털 쌍둥이(Digital Twin)를 실현함으로써 건물 하나를 새로 지을 때 주변의 일조권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고, 바람의 통로를 모의 실험해 도시 전체가 골고루 신선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적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시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도시 개발에 융합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또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운영비를 절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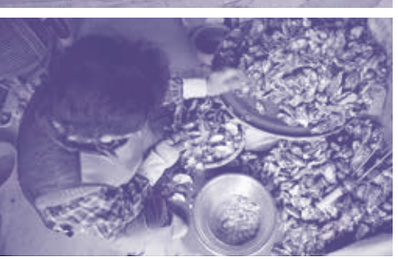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를 꿈꾸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스마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천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의 세계적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급자 중심,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화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인천이 진정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 절실하다. 정책 부서 간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어 통합된 공공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궁극적인 소비자인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인천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스마트 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거기 있어줄래요?

글 양진채

소설가이다. 주안 신기촌, 옥련동 바닷가 근처, 용현동과 석남동을 거쳐 지금은 부평에 살고 있다. 인천의 곳곳을 눈여겨보며 깊이 사랑해 소설로 녹여내고 있다.

테마 소설집 <인천, 소설을 낳다> 2015 | <검은 설탕의 시간> 2019 | <변사 기담> 2016 | <달로 간 자전거> 2017 | <푸른 유리 심장> 2012



싱싱한 굴에서는 바다 냄새가 난다. 이 굴 비린내는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인천 냄새이다. 만석동에 살던 이모는 굴을 깠다. 목장갑을 끼고, 굴 껍데기를 잡고, 조쇄로 벌리고, 탱글탱글한 굴을 꺼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양재기 안에는 굴이 점점 늘어났다. 이모는 옆에 쭈그려 앉아 구경하는 어린 내게, 이게 뭐라고 그렇게 넋을 놓고 본다냐, 하며 까던 굴을 내 입에 쏙 넣어주고는 했다. 그때 나는 몇 살쯤이었을까. 날름 받아먹은 굴에서는 쉽게 가 닿을 수 없는 저 바다의 깊고 푸른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건 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곳의 이미지였다. 이 기억은 잊히지 않는다. 나보다 두 살 많던 사촌 언니는, 뜻도 모르며 나훈아의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가려워서 울 테니까요' 하고 목청을 높이는 나를 비웃었다. 나중에야 '가려워서'와 '괴로워서'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동네 공터에는 굴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냄새는 매번 달랐다. 굴 껍데기를 지나고 나온 바람도 달랐다. 아이들은 굴 껍데기 썩는 냄새를 맡으며 그 위에 올라가서 놀았다. 이 기억은 내 소설 <변사 기담>에서, 묘화가 굴 껍데기에서 넘어져 손을 베이고, 피를 흘리며 울고, 아이들은 미친개가 쫓아온다고 놀리는 장면에 녹아 있다. 묘화의 내면 상처가 드러나고, 기담이 묘화를 기억하게 된 순간이기도 하다. 나는 어느 작가와의 대화 자리에서 굴 비린내야말로 가장 바다와 닮았고 그래서 인천의 냄새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굴 비린내가 냄새로 기억되는 인천이라면 장면으로 기억되는 인천은 단편 소설 <검은 설탕의 시간>에 나오는 아버지의 바지에서 쏟아지던 검은 설탕이다. 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링으로 조인 바지 밑단을 풀어 갑판장에서 쓸어 왔을 검은 설탕을 쏟아내고, 어머니는 그걸 보자기에 받았다. 검은 설탕에 물을 부어 떠오르는 부유물을 재빨리 버린 다음에 설탕물로 쓸 수 있었다.

어린 날, 까자마자 바로 입으로 들어오던 싱싱한 굴이나 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숨겨 온 검은 설탕을 풀어내던 기억은 내 소설로 고스란히 남았고, 이 경험은 내가 인천에 살지 않았다면 도저히 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변사 기담>을 출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작가의 말에 쓴 '인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말뜻을 물었다. 문학을 알기 전까지, 인천을 애정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 인천은 그저 칙칙한 잿빛 도시에 불과했다. 가난하고, 이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나와 닮은 도시. 그래서 외면하고 싶던 도시였다. 그 미안한 마음이 빚이었다.

문학을 하면서 내가 발을 딛고 선 인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인천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적 자양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자양분이 숨겨진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금씩 꺼내 소설로 썼다.

<변사 기담>의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월미포격사건, 애관극장, 북성포구, 배다리 등이 개항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변사인 기담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 최근에 발간한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에 수록된 여러 단편도 마찬가지였다. 소설 <허니문 카>는 여름이면 송도유원지에서 놀았던 기억이, 송도유원지 마지막 날의 헌사처럼 소설을 쓰게 했다. 송현동에서 살았던 유동현 시립박물관장님이 들려준 수문통 얘기는 '부들 사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편 소설 '플러싱의 숨 쉬는 돌'에는 인천5·3민주항쟁 한가운데 있던 기억이 소환되었다. 북성포구는 <변사 기담>을 비롯해 <패루 위의 고래> <북쪽 별을 찾아서> 등에 등장한다. 그 외에도 여러 편의 소설에 어떤 형태로든 인천이 조금씩 등장한다.

나는 가능하다면 인천을 내 소설에 버무리려 했다. 그리고 이 인천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변해버리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인천다운' 가치는 무분별한 개발에서 그럴듯한 무언가를 세워놓고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인천의 보물을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는데, 미추홀도서관을 비롯해 몇 곳의 도서관에서 나를 '2019 인천 문학 작가'로 선정하고 도서관 내에 부스를 만들어주었다. 인천에 점점 더 많은 빚을 진다. 빚을 지면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뻔뻔하게도 빚을 갚기는커녕 대출까지 생각한다. 그래도 인천은 내가 인천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 나는 변명하듯 웅얼거린다.

"인천이라 다행이고 인천이어서 고마워. 늘 거기 있어줄 거지?"

사진 김형환 - 만석동 콜마과 만석부두의 기록

“13년 애물단지가 이제 보물단지 됐어요”

월미도 상인 염정숙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월미바다열차 개통은
월미도 주민들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월미바다열차가
지난 10월 8일 운행을 시작한 뒤
월미도는 더 행복해지고 있다.’

시민 시장 - 염정숙

청명한 가을 하늘을 가르며 저만치서 꼬마열차가 들어온다.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협궤열차보다 더 작은 두 칸짜리 ‘월미바다열차’를 바라보는 염정숙(66·다원횟집조개구이 대표) 씨 눈길이 잘 성장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처럼 다정하다. 구름다리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레일 위 열차는 카키빛 바다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 노을 진 월미도를 보여주며 6.1km를 나아갈 것이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변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0년이 뭐야, 공사 기간까지 합하면 13년 만인걸.” 염 씨는 “완공되기 전 3년 동안 공사로 길이 막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손님들도 많이 끊겼지만 열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가 참아냈다”며 “하지만 완공 뒤 10년간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가 쌓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마침내 결실을 보며 월미도 주민들은 요즘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심정이라고.

그의 말처럼 월미바다열차는 이 지역 주민들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꿈이 현실이 된 건 지난 10월 8일이다. 학수고대하던 월미바다열차가 개통, 운행을 시작한 것. 이후 월미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당장 염 씨가 운영하는 횟집 매상이 하루 40만~50만원 늘었다. 월미도번영회(회장 장관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며 180여 업소의 전반적 매출이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스물세 살 때 서울에서 결혼한 그가 인천에 정착한 때는 스물여섯 살이던 1979년. 두 살 된 딸과 한 살 아들을 둔 염 씨 부부는 열심히 맞벌이를 해 월미도 구석에 ‘와송’이란 횟집을 차린다. 이후 좀 더 목이 좋은 곳으로 횟집을 이전했고, 지난 1999년엔 가게 이름을 ‘다원’으로 바꾸고 공간을 넓히며 지금의 놀이공원 사거리까지 올라왔다. 이 기간 다른 사람들처럼 IMF를 겪었을 테고, 수년 전부터 경기 불황 터널을 지나며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희 부부는 힘들다, 피곤하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새벽 5시쯤 눈을 뜬다. 이때 남편 유영남(70) 씨는 연안부두로, 아내는 가게로 나간다. 남편이 싱싱한 해산물을 선별하는 동안 아내는 가게를 청소하고 밑반찬을 준비한다. 오전 9시.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요리사, 남편은 홀 서빙 담당이자 주차장 관리자로 변신한다. 그렇게 밤 12시까지 부부는 꼬박 하루 15시간을 일한다. 부부에게 1년 중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요즘 추석이나 설날은 오히려 대목 중에 대목이다.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정 바쁠 때만 음식을 나르는 알바 아주머니를 쓴다. 그런 그에게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개념을 이야기하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일과 삶을 따로 구분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놀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만 해도, 장사를 하며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생계도 꾸려갑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놀이가,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와 푸른 대지가 있고, 공기가 맑은 땅. 그는 월미도를 사랑한다. 자택 역시 문 열면 바로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물비늘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월미도 앞바다가 보내주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멀어져 가는 월미바다열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월미도 또순이’의 얼굴에서 가을 햇살을 닮은 미소가 피어난다.

11

NOVEMBER 2019

이달의 展

제8회 한·중 문화교류전
11월 1일(금)~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6회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전
11월 1일(금)~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공예가 말하다
11월 1일(금)~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연수구 미술인 축제
11월 5일(화)~14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먹의 향연
11월 5일(화)~14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3회 인천원로작가전
11월 8일(금)~1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13회 한·미국제미술교류전(인천-워싱턴전)
11월 8일(금)~1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제물포고등학교 사진동호회전
11월 8일(금)~1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20회 인천시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11월 15일(금)~2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일상을 담다' 도자기전
11월 15일(금)~2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7회 유묵회 서예전
11월 19일(화)~28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3회 연필스케치전
11월 19일(화)~28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79회 인천미술협회전
11월 22일(금)~28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미추홀전시실

05

제24회 미추홀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880-4296

호랑이와 곶감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07

인천시립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000원
Ⓣ 1588-2341

창작 뮤직컬 '언노운(Unknown)'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1월 7일~8일 오후 7시 30분
11월 9일 오후 3시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1544-1555

08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070-5101-2334

시민에게 열린 무대 '우리도 예술가'
학산소극장
11월 8일 오후 7시
11월 9일 오후 4시
무료
Ⓣ 032-866-3993

09

인천시립교향악단 키득키득 키즈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온가족이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032-888-0808

10

제10회 인천뮤직플라이플룻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10-6204-6431

센트럴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010-8375-5800

13

명작 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13일~14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전석 2만원, 단체 6,000원
Ⓣ 02-882-9001

14

재즈 탱고 그리고 시네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 032-899-1517

이야기장수와 도깨비
학산소극장
11월 14일~15일 오전 9시 30분·11시
11월 16일 오후 4시
전석 1만원
Ⓣ 032-866-3993

15

제3회 인천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10-9490-8501

Song of the Cello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 010-4049-4150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미추홀시민오케스트라 14회 Concert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10-5822-8501

아트센터 인천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

아트센터 인천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32-453-7700

17

인천브라스밴드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무료
Ⓣ 032-463-5554

19

홍승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흥미진진 클래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제6회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 '놀래'
학산소극장
11월 19일~23일
무료
Ⓣ 032-866-3994

20

커피콘서트IX 국악그룹 이상 'Urban 풍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1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담청(淡靑)'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1일 오후 2시
11월 22일 오후 8시
11월 23일 오후 5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1588-2341

22

프랑스 여행 스케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호두까기 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11월 23일 오후 2시
R 3만원, S 2만5,000원, A석 2만원
Ⓣ 032-815-1227

23

11월의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2019 밴드데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23일 오후 6시
11월 24일 오후 5시
전석 3만원
Ⓣ 1588-2341

26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실내악 포커스 II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5,000원
Ⓣ 1588-2341

클라츠 트리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032-505-5951

27

학산가족음악회 '코리안 랩소디'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
Ⓣ 032-866-3993

28

혜광브라인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522-8345

이금희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032-500-2000

29

제4회 인천사랑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70-4756-1904

30

2019 김창욱 토크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 02-333-9009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굿모닝 컬처데이

Good Morning Culture Day

11월에는 '2019 밴드데이' 공연 티켓을 다섯 분께 2매씩 드립니다.

<굿모닝인천>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0만 시민 여러분께 매월 문화를 선물합니다.
<굿모닝인천> 모바일북 팝업 창으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월 다섯 분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공연 티켓 2매씩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굿모닝인천>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에 접속한다.
2) 팝업 창을 클릭, 퀴즈 정답과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응모한다.
3)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다.
4)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IMAGE
NEWS

#11월 1일, 시청 앞 광장 #'인천愛(애)뜰' 전면 개방
#잔디 광장은 10월 7일부터 #우선 개방

01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에게 환원
#LED 의자, 파고라, 피크닉테이블 등 #다채로운 쉼터 가득

02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새로운 명소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매핑, 홀로그램 등
#이색 경관 시설 설치

03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원
#시민과 인천이 #한 걸음 더 가까이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이 내년 말 개통된다.

국내 첫 국가드론인증센터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선다.

우리 시는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인천버스종합터미널과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광역급행 버스 M6439 노선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월미바다열차 개통을 기념해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영종도까지 관광 트롤리버스가 운영**된다.

우리 시가 오는 **12월까지 노인 268명과 경륜전수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의 명칭이 각각 '인천도호부관아'와 '부평도호부관아'로 변경된다.

우리 시가 **내년부터 3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평균 10% 인상**한다.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 26년 만에 구월동을 떠나 **내년 2월 남촌동으로 이전**한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NEWS
BRIEF

국내 첫 드론인증센터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국내 첫 국가드론인증센터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선다.
우리 시는 2021년까지 232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됐다.
드론인증센터는 4,830m^2 규모의 실내 테스트 센터와 4,000m^2 크기의 실외 테스트 활주로를 갖추고, 무인 비행체인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내 1,034m^2 부지에 드론 연구·제작·시험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항공안전기술원·한국카본(KAT)·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드론 관련 기관 29곳이 있는 인천로봇랜드와도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항공과 032-440-4808

시민과 함께 '빈집 활용' 프로젝트 착수

우리 시는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통과한 10개 팀, 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빈집 채움단'을 발족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2~3곳을 선정,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매입하고 시는 공익 목적으로 5년 이상 무상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88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 의견 반영

우리 시는 지난 10월 23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민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시민 138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시민 중심의 국제·문화·해양도시'를 인천의 2040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전문가 회의, 군·구 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정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시 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12

중국기업 '이용탕' 포상관광객 8,000명 유치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0월 23일 중국 건강웰빙식품 판매기업 '이용탕(溢涌堂)'과 포상관광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용탕 임직원 8,000명은 내년 2월 9일~14일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인천에서 기업행사를 열고 수도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시는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기업 포상관광 행사를 유치한 것이라며, 한중 문화교류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40-1503

인천터미널~역삼역, 광역급행형 버스 신설

인천버스종합터미널과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6439 노선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구월 선수촌사거리, 서창지구와 교대역·서초역·강남역·양재역·서초구청 등을 경유하는 이 노선은 차량 10대로, 1일 50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20~25분이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82

광화문서 월미도·영종도까지 트롤리버스 운행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개통을 기념해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영종도까지 관광 트롤리버스를 운영한다.
투어 코스는 광화문~인천 개항장~월미도~영종도~송도~광화문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1만9,000원, 소인 1만5,000원이다.
월미도에서 영종도 구간은 버스를 차도선에 실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배 위에서 갈매기에게 새우과자를 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시는 지난 8일 개통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를 위해 관광 트롤리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032-440-4102

인천 미추홀참물 라벨 없는 용기 첫선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라벨을 붙이지 않은 미추홀참물 페트병 용기를 국내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다.

우리 시는 페트병을 재활용품으로 내놓을 때 라벨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비접착식 페트병을 제작했다. 시는 지난해 병입 수돗물을 320만 병 공급했지만 일회용품 감량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는 생산량을 6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032-720-2674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선' 내년 말 개통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이 내년 말 개통된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에 대한 토목공사를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6월까지 건축과 기계, 소방 등 건축기계 부분 공정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에는 정식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과 함께 상부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상부도로 공사도 지하철에 맞춰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032-451-2782

'2019 인천시 건축상' 대상에 '코스모40'

우리 시는 서구 가좌동의 '코스모40'을 '2019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코스모40은 도시 개발로 사라져가는 공업지역에서 과거 모습을 현재 관점에 놓고 건축적 실험을 잘 적용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과 송림동 근린생활시설 등 2개 건축물이 선정됐고, 인천 첨단초등학교 등 6곳은 장려상을 받았다.
시민 투표로 뽑은 1위 건축물에는 청라 레이크하우스가 선정됐다.
시 건축계획과 032-440-4723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정 평가 '우수 단체' 선정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지방세 자체 수입 비율, 보조금, 외부 전출금 등 적정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적극적인 채무상환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온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시 예산담당관 032-440-1602

송도국제도시 4개 공원 연결 2.6km 녹지길 조성

도로로 단절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4개 도심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길이 조성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누리공원에서 글로벌파크까지 연결하는 녹지길 3곳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지난 3월 착공해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 구간은 2007년 조성된 미추홀공원에서 올해 7월 준공된 글로벌파크까지 도로로 끊긴 4개 지구 공원 2.6km를 연결하는 것이다. 경제청은 녹지길이 완성되면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각 공원의 기능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253

'미추홀명장' 금속재료제조 직종 임성만 씨

우리 시는 2019년 '미추홀명장'으로 금속재료제조 직종의 임성만(60)씨를 선정했다. 임씨는 금속재료제조 분야에서 37년 넘게 일한 우수 숙련 기술인이다. 기술 개발로 무산화 주조를 실현해 결함 발생률을 0.09%로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했다.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자기 계발에도 노력해 제강, 압연, 제선 등 다수의 기능장을 취득했다. 임 씨는 "중소기업과 제철학과 학생들에게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해 후배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42

송도 워터프런트 2차 타당성 조사 11월 마무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워터프런트 1-2공구와 관련한 2차 타당성 조사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이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의뢰해 진행 중인 송도 워터프런트 1-2공구와 관련한 2차 타당성 조사가 11월 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내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42

268명 대상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우리 시가 오는 12월까지 노인 268명과 경륜전수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10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륜전수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은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68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월 30시간 공익활동을 한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노후 주택 3개소에 원도심 하우징 닥터 실시

우리 시는 지난 10월 2일 원도심인 미추홀구와 남동구의 노후 주택 3개소에 대해 무료점검 서비스인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미추홀구 주안동, 남동구 간석동·만수동의 준공된 지 29년 이상 경과된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원도심 하우징 닥터는 노후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현재 8개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외) 등 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88

특·광역시 최초 쌀 소비 촉진 조례 제정

우리 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시는 미곡종합처리장·도정업체·영농조합법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2명 이내 위원으로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 안정적인 쌀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또 시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쌀의 대량 소비처인 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구내식당, 유치원·초·중·고교 급식처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며 지역 농민의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 시에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시상식에서 6년 연속 특산물 부문 대상을 차지한 강화섬쌀을 비롯해 18개 브랜드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62

도호부청사…'도호부관아'로 명칭 변경

우리 시 유형문화재 제1·2호인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의 명칭을 각각 '인천도호부관아'와 '부평도호부관아'로 변경된다.
시는 지난 7월 26일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되는 '청사'라는 명칭을 '관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부평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 문화재과 032-440-4032

하수도 이용료 3년간 매년 평균 10% 인상

우리 시는 내년부터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평균 10% 인상한다.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2016년 이후 동결됐으나 사용료가 처리 원가에 못 미쳐 연간 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월평균 사용량 20m^3 기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는 이번 인상 결정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4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년 2월 남촌동 이전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 26년 만에 구월동을 떠나 내년 2월 남촌동으로 이전한다.
남촌농산물시장은 남동구 남촌동 17만m^2 터에 조성, 경매장·직판장·관리사무동 등 7채의 건물로 구성된다. 3,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촌농산물시장 조성 공사는 2017년 12월 시작돼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2

구조된 천연기념물 원앙, 인천대공원에 방생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여름 구조한 원앙 5마리를 인천대공원 습지원 호수에 방생했다. 자연으로 돌아간 원앙은 암컷 4마리와 수컷 1마리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미를 잃은 새들이다. 센터는 방생된 원앙이 어미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야생 행동 습성을 배우지 못한 점을 고려해 먹이가 풍부하고 생태환경이 좋은 인천대공원 호수를 방생 장소로 선택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국내 보호종 조류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센터는 지금까지 야생동물 690마리를 구조했다. 이 중 천연기념물은 136마리이며 84마리는 치료를 받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032-858-9703

COUNCIL NEWS

톈진시와 우호관계 발전방안 논의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중국 톈진시 대표단과 양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와 톈진시는 지난 1993년 12월 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인천시의회와는 2004년 4월 13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우리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 항공 복합물류산업의 거점도시"이며 "인천시와 톈진시는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도시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톈진시 대표단 돤춘화 주임은 "양 도시 모두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어 도시계획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톈진시(天津市)는 중국 4대 직할시로 인구 약 1,550만 명, 면적 1만1,946km^{2}의 항구도시다.

자치분권 연구회, 입법정책 전문인력 역량 교육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연구회'는 지난 10월 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전문인력 역량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인석 전 서울시의회 입법지원관이 강사로 나섰다. '자치분권시대 인천시의회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발굴'을 주제로 의정활동 지원 방향과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역량 교육을 개최한 자치분권 연구회는 민관협치 모델과 자치권 강화에 따른 인사·조세·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문화복지위, 여성가족재단 등 현장 방문 실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 방문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인력개발·사회참여 활성화 및 능력개발 등의 연구·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여성 전용 수영장, 문화예술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개월간 내진보강, 석면철거, 소방설비 및 건축기계 등을 전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다.

교육위, 산곡초·강남중 등 교육현장 방문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 산곡초, 사리울중, 영선고, 강남중, 백석고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 학교의 시설복구 진행사항 및 창의융합형 과학교실 구축사업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인근의 산곡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대책 수립을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위원장은 이날 학교 현장에서 태풍 피해 등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행정위, 현안 사업 주요 현장 방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요 현안 사항 현장 확인을 위하여 지난 10월 10일과 16일 각각 청년창업보육 앵커시설로 조성될 석남 거북이기지와 남동 1·2 유수지 등 총 7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또 최근 심심찮게 발생하는 해상화재에 대한 인천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중부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일반 현황과 해상화재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직접 소방정에 탑승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인천시의회 방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다그바 렌트세나그바(Dagva Rentsendagva)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1명의 대표단이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를 방문했다.
이번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자매우호도시로서 양 도시 의회의 우호교류 증진 및 대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이뤄졌으며, 인천시의회 예방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내 IFEZ 홍보센터, 인천교통공사, 자국 울란바토르시 관련 기업 등을 방문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대표단에게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양 도시가 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 부평미군기지 사업현장 점검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57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6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사업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북측 A구역 내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반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시찰에 참여한 건설교통위원장은 "오염토양 정화 작업 시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업 기간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해 캠프마켓이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7~8 Ⓗwww.icounc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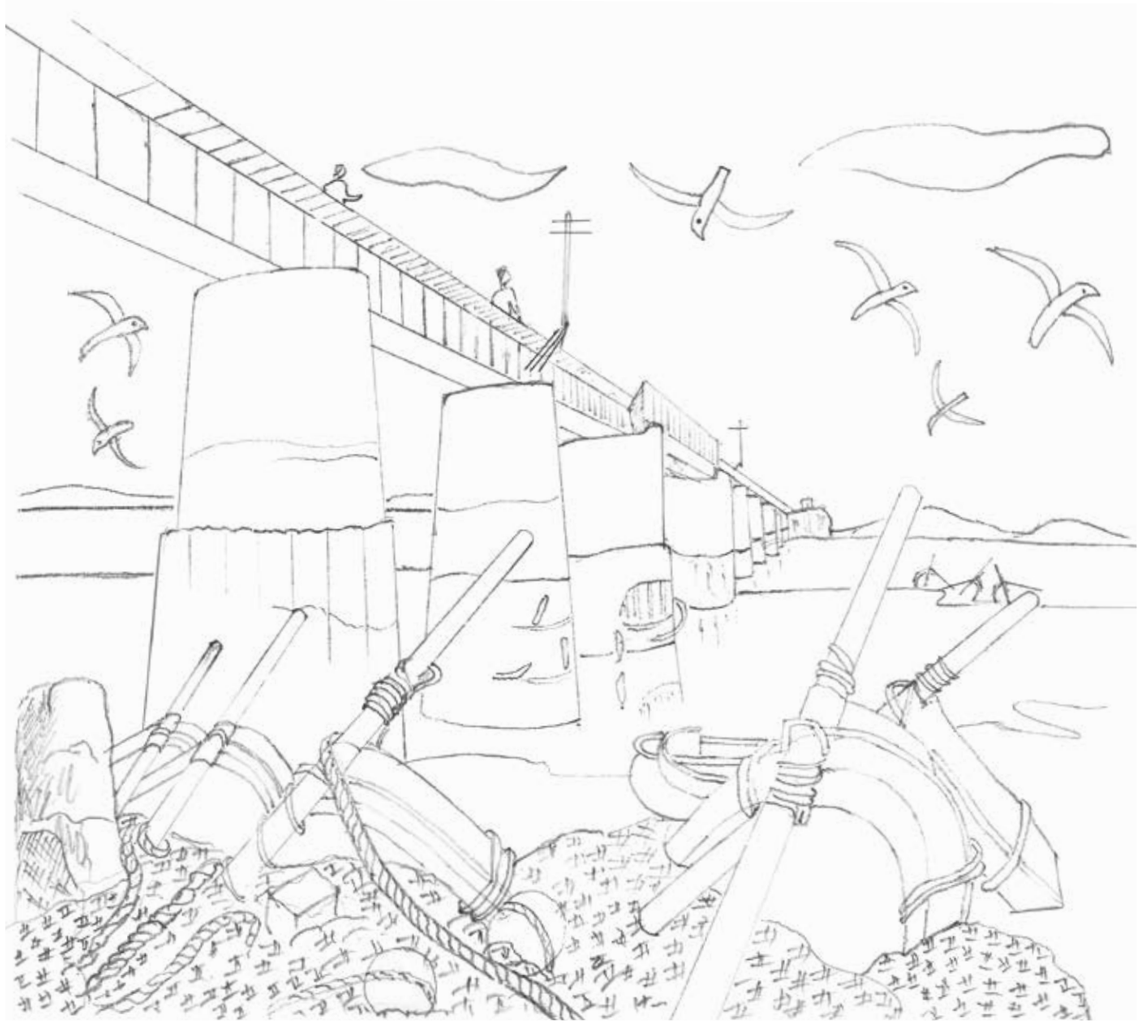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Made in Incheon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추억으로 가는 열차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은 밝았지만, 수인선 협궤열차는 다시 볼 수 없었다. 1995년 12월 31일 오후, 서민의 애환 싣고 하루 세 번 인천과 수원을 오가던 수인선 협궤열차의 목적지는 역사의 뒤안길이었다. 그 시절 소래포구를 자주 찾았다. 굴곡진 세월만큼이나 닳고 닳은 철다리와 어선, 짠내 나는 포구, 활기찬 아낙의 삶을 그림으로 옮겼다. 가을이면 나문재로 발갛게 물든 환상적인 갯벌의 풍광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그때를 회상하며, 수인선 협궤열차가 퇴장하기 전 소래포구 철다리의 모습을 그렸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시민들을 옛 추억으로 싣고 가는 한 장의 기차표가 되길 바라며.

소래철교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인근
–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했던
수인선 협궤열차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3) **기간** : 2019년 11월 2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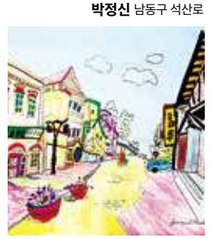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연희 남동구 남동대로

<굿모닝인천> 10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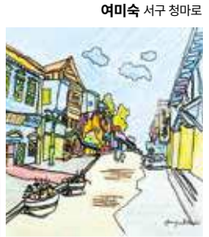
송다현 미추홀구 인하로

박정신 남동구 석산로



김홍민 경기도 안산시

여미숙 서구 청마로



추억의 소래다리
162x130.3cm oil color

이 달의 드로잉
고윤 작가

2018년 '제36회 인천시 문화상'을 수상한 인천의 원로 작가다. 19회에 걸친 개인전을 열었다. 다수의 권위 있는 미술 대전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인천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고문과 이형회 회장을 맡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국제도시의 눈부신 발전상을 한눈에

신나는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연수 시티 투어'에서 국제도시의 매력을 만끽하세요.

일시 : 11월 23일 오전 9시~오후 1시
주제 : 송도국제도시의 오늘과 내일-2
코스 : 인천대교 - 인천대교홍보관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 인천글로벌캠퍼스 - 인천신항 등
참가비 : 무료
접수 : 전화 및 방문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02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을 위한 교육

어린이집 복귀를 준비하는 선생님을 위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로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 업무를 수행하려는 선생님
교육 내용 : 인성·소양·건강·안전·전문 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교육 시간 : 1일 8시간, 총 40시간 집합 교육(5일간)
교육 일정 : 수시 교육 개설·운영
교육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교육비 : 8만원(교재비 별도)
신청 방법 : Ⓗ chrd.childcare.go.kr
문의 : 시 보육정책과 Ⓣ 032-440-3414

03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 생각 찾기

부평 캠프마켓 1단계 C구역 반환 승인에 따른 공여 구역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사명 : 제2회 부평 캠프마켓 시민 생각 찾기
주제 : 캠프마켓의 미래,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기간 : 10월 30일, 11월 1일~2일(3일간)
참여 인원 : 2,000여 명(성인 1,000여 명, 청소년 등 1,000여 명)

04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다름의 동행, 협치로 잇다'는 부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7시
장소 : 시청 중앙홀, 대회의실 및 공감회의실
내용
* 2030 미래이음 정책 시민 공유
* 2019 협치 인천 공공토크
* 주민참여예산 사례 공유회,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 시민주권선언 기념비 제막식 및 인천愛뜰 개장 기념식수
* 2030 미래이음 정책 시민 보고 및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
* 문화공연 및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문의 : 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 032-440-3396~7

05 배움에 시기란 따로 없습니다

남인천중·고등학교에서 1년 3학기제로 진행되는 주야간 학생을 모집합니다. 배움의 꽃을 다시 피워보세요.

모집 인원 :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240명
수업 연한 : 2년(1년 3학기)
입학 자격
* 중학교 :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 초등 학력 인정 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 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수업료
* 중학교 : 무료(의무 교육)
* 고등학교 : 수업료 및 교과서비 교육청 전액 지원
원서 접수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선착순)
문의 : Ⓣ 032 722-1311~4

06 스마트폰 중독, 교육으로 해결하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 : 11월 9일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실
비용 : 무료
접수 기간 :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 withyouth1388@daum.net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721-2307

07 동네 목욕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2019 기획전 '동네 목욕탕 - 목욕합니다'를 개최합니다. 근대 이후 생긴 목욕탕이 오늘날 동네 목욕탕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간 : 2020년 2월 2일까지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아암홀
주제 : 목욕탕과 목욕 문화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00

08 인천 앞 바다, 알면 더 즐거워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도시 속 놀이터 - 도란도란 박물관 어린이 공방 – 바다 편'에 참여해서 인천의 '바다'를 알아보고, 오르골 무드등 만들기도 체험해 보세요.

일시 : 11월 23일
오전 10시~낮 12시(6세~초등 2학년),
오후 2시~4시(초등 3~6학년)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3층 소강의실
대상 : 각 2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 11월 18일 오전 9시~21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16

09 '인천의 유원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인천도시역사관 도시 탐사 시즌 4에서 '인천의 유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1월 인천의 유원지는 묘도유원지입니다.

일시 : 11월 5일 오전 10시~낮 12시(이론 강의),
11월 6일 오전 10시~낮 12시(현장 답사)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중강의실 및 연수구 일대
대상 : 성인 30명
수강료 : 무료
신청 : Ⓗ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 10월 28일 오전 9시~11월 1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31

10 소통 아카데미가 말문 열어줍니다

'찾아가는 소통 아카데미'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 습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제 : 소문만복래(소통 문화 만들면 복이 와요)
일정 : 11월 4일 오후 2시(중구자원봉사센터),
11월 8일 오후 2시(마중물문화광장 샘)
신청 및 문의 : 중구 Ⓣ 032-777-1365, 남동구 Ⓣ 032-472-1365

11 문화가 있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2019년도 연수문화원 겨울 학기 문화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와 함께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세요.

교육 기간 : 12월 2일~2020년 2월 28일(3개월간)
프로그램 : 시각, 공연, 전통, 인문 통합 예술 강좌 등
접수 기간 : 선착순
장소 :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수강 신청 : Ⓗ www.yeonsu.go.kr/culture 및 방문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12 인천 원로 작가 작품 보러 오세요

가을을 맞아 인천 원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제3회 인천 원로작가전'이 열립니다. 만추의 이 계절을 예술과 함께하세요.

기간 : 11월 8일~14일(개막식 11월 8일 오후 5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참여 작가 : 이삼영, 리지훈, 오영애, 정근화, 김정희(한국화), 이철명, 노희정, 박영돈, 박송우, 홍윤표, 엄규명, 윤의웅, 박희자, 고윤, 최수동, 김재열, 유재민, 김응조, 윤석, 이순자 수산나(서양화), 오정숙(조각), 이준구(문인화), 이성촌, 강난주, 최원복(서예)
문의 : Ⓣ 010-6745-2337

13 백제사신이 걸어간 길, 함께 걸어요

향토 문화 탐방 프로그램 '백제사신길 도보 투어'가 진행됩니다.
이 가을, 역사와 함께 걸어요.

일시 : 11월 12일 오후 2시~6시, 11월 16일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 백제사신길
내용 :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백제사신길 도보 투어
참가비 : 무료
접수 :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14 도시를 보는 아홉 번째 시선

'2019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展 - #9 조오다'의 개막 행사로,
작가와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 27일 오후 7시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
주제 : 겹쳐지는 인천 도시를 증명하다
대상 : 성인 20명
신청 : Ⓗ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 11월 18일 오전 9시~22일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14

15 도심 속 울려 퍼지는 '요들레이히~'

60세 이상 음악을 사랑하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동아리 '알프스요들 마마파파'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6일 오후 6시
장소 : 청학아트홀(청학문화센터 1층)
참가비 : 무료
관람 : 자유롭게 방문 관람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16 보다 깊이 있는 지식과 학문에 도전하세요

인하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대학원
* 대학원 :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 MBA 과정(야간 MBA), 학술 석사 과정, 박사(통합) 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 전문 박사 과정
* 특수대학원(교육·공학·경영·정책·상담 심리) : 석사 학위 과정(공통), 석사 주중 MBA 과정, 석사 주말 MBA 과정, 지속 가능 경영 MBA 과정, 서비스 경영 MBA 과정
문의 : Ⓗ www.inha.ac.kr 또는 Ⓣ 032-860-7114

17 도서관 11월 문화 행사 모아보기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 행사를 소개합니다.

[미추홀도서관]
아기 천사들의 木소리
일시 : 11월 7일~28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낮 12시
대상 : 영유아 및 학부모
문의 : Ⓣ 032-440-6648

영어 그림책 공부법
일시 : 11월 27일 오후 2시 30분~3시 30분
대상: 학부모 30명
문의 : Ⓣ 032-440-6667

[청라호수도서관]
재능 기부 특강 '마음을 담은 인사 예절'
일시 : 11월 23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 2~3학년
문의 : Ⓣ 032-563-8126

원화 전시 '비비를 돌려줘'
일시 : 11월 한 달간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문의 : Ⓣ 032-563-8048

[청라국제도서관]
스마트한 엄마표 뉴스 활용 교육 방법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11월 28일까지)
대상 : 학부모 20명
문의 : Ⓣ 032-562-1672

나의 적성(진로) 알아보기'
일시 : 11월 9일, 16일 오후 2시~4시
대상 : 학예사, 외교관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
문의 : Ⓣ 032-562-1672

[영종하늘도서관]
원화 전시회
일시 : 11월 28일까지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문의 : Ⓣ 032-746-9142

BOOK INFO

인천서점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

아버지는 보자기에 발을 올려놓고 바지 밑단을 조였던 고무링을 빼냈다. 고무링을 빼기 무섭게 내복 바지와 작업복 바지 사이, 종아리까지 차 있던 검은 설탕이 꾸역꾸역 밀려 나왔다. 내복 바지를 입었기에 설탕이 아버지의 북실한 종아리 털에 달라붙지는 않았다. 설탕 냄새는 진했다.

검은 설탕의 시간

지은이 양진채
369쪽 15,000원
펴낸 곳 강

소설 속에서 꾸준히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진채 작가는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스카 라인>으로 등단했다. 지난 9월 발간한 소설집에서도 그의 기억 속 인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북성포구, 옛 시민회관, 자유공원, 송도유원지 등 소설 속 인천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각 인물의 기억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장소 그 자체로 자리하고 있다. 표제작 '검은 설탕의 시간'은 인천 내항을 통과하는 시티 버스를 타면 펼쳐지는 풍경과 교차하며 과거에 그곳 부두 하역 노동자였던 저자의 아버지와 가족의 지난 기억을 덤덤하지만 애틋한 시선으로 이야기한다. 이번 신간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에는 표제작을 비롯해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librairie@naver.com

배다리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가수 송창식에게 배다리는 음악의 모태였다. 신흥초등학교 시절 '인천의 3대 거지'로 불릴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심취한 송창식은 20대 초반 틈만 나면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찾았다. 그는 이때 수십 개에 이르는 헌책방을 전전하며 '음악'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이란 책은 모조리 탐독한다. 화성학, 음악 평론 등 주로 음악 이론에 관한 책들이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왜 불러' '한번쯤' '토함산' '선운사'처럼 훗날 국악적 빛깔이 가미된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 할 수 있었던 것도 배다리 헌책방에서의 음악 이론 독학 시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히트곡 가운데 '담배가게 아가씨'는 배다리에 있던 작은 담뱃가게를 모티브로 만든 곡이기도 하다. 수년 전,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때 배다리 헌책방 인근 한 귀퉁이에 작은 담뱃가게가 있었는데 담배를 파는 '짧은 머리 곱게 빗은' 아가씨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고 허허 웃으며 송창식은 말했다.

1970~1980년대 배다리는 학생들로 넘쳐났다. 새 학기만 되면 까까머리, 단발머리 남녀 학생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었다. <수학의 정석> <성문종합영어>와 같은 학습 교재는 물론이고 교과서도 활발히 거래됐다. 지금은 아벨서점, 한미서점, 삼성서림 등 대여섯 개만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1970년대엔 40여 개의 헌책방들이 성업을 이루며 서울 청계천, 부산 보수동과 더불어 전국 3대 헌책방 거리로 이름을 날렸다.

애관극장이 있는 중구 경동의 동쪽 방향으로 가다 경인전철 철교 아래를 지나 동구 금창동 초입에서 만나는 배다리. 지금은 복개됐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곳엔 물이 드나들었다. 동구 화수동 괭이부리에서 수문통을 지나 지금의 송림초등학교 앞에 이르는 커다란 갯골을 따라 들고 나는 바닷물이었다. 배다리란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경인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배를 댈 수 있는 '잔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잔교는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가 아닌 배를 대는 구조물로, 모양이 다리처럼 생겨 이 같은 이름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개항과 함께 1883년 중구에 일본 조계, 1884년 청국 조계를 비롯한 각국 조계가 형성되면서 인천 사람들은 배다리 지역으로 모여들었다. 1892년 영화학당(현 영화초등학교) 설립, 1907년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가 개교하고 점차 정미소, 양조장, 성냥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배다리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 배다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기는 1999년 '동구~중구 연결도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다. 물류 비용 절감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인천의 남북을 잇는 핵심 연결망 구축 사업이었지만 주민들은 마을 간 단절, 교통난 가중,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멈춰선 채 20년이 흐르다 인천시의 소통 행정으로 최근 배다리도로 사업에 대한 민관 논의가 재개됐다. 논란이 됐던 3구간(일명 쇠뿔배다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민 행복' 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그럴 경우 주민들의 걱정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 여기에 공사 기간 안전 조치는 물론이고 매연·소음 최소화, 제한 속도 50km 등 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 20년 과제가 하루아침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시가 손을 맞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배다리'를 위한 아름다운 대화가 시작된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늘 곁에 있던 딸아이가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품 안의 자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시차 때문에 통화도 쉽지 않은 딸아이를 그냥 보내기 싫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빴는지,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가족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곧 다시 헤어지겠지만 사진 속 딸아이를, 또 가족을 매일 매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납니다.

안현주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준스튜디오'**에서 찍어주셨습니다.

11년 된 사진관의 역사는 곧 송도국제도시의 역사입니다. 도시는 많이도 변했지만, 사진관을 찾는 오랜 단골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강병무 사진사는 매일 아침 힘차게 사진관의 문을 엽니다. **위치** 연수구 신송로 122 **문의** 032-851-8263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